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과 2026년 상반기 전망

Pulse of Fintech H2 2025

March 2026

—
삼성KPMG 경제연구원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Pulse of Fintech H2 2025”를
삼성KPMG 경제연구원에서 한글 요약한 자료입니다.



▲ 표지 클릭 시, 영문본 다운로드 가능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상무
E gyulimkim@kr.kpmg.com

노승환
책임연구원
E seunghwanroh@kr.kpmg.com

Contents

I. Executive Summary 및 2026년 상반기 전망	2
II.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과 전망	9
III. 섹터별 핀테크 투자 동향과 전망	15
IV. 지역별 핀테크 투자 동향과 전망	22
[Appendix] Methodology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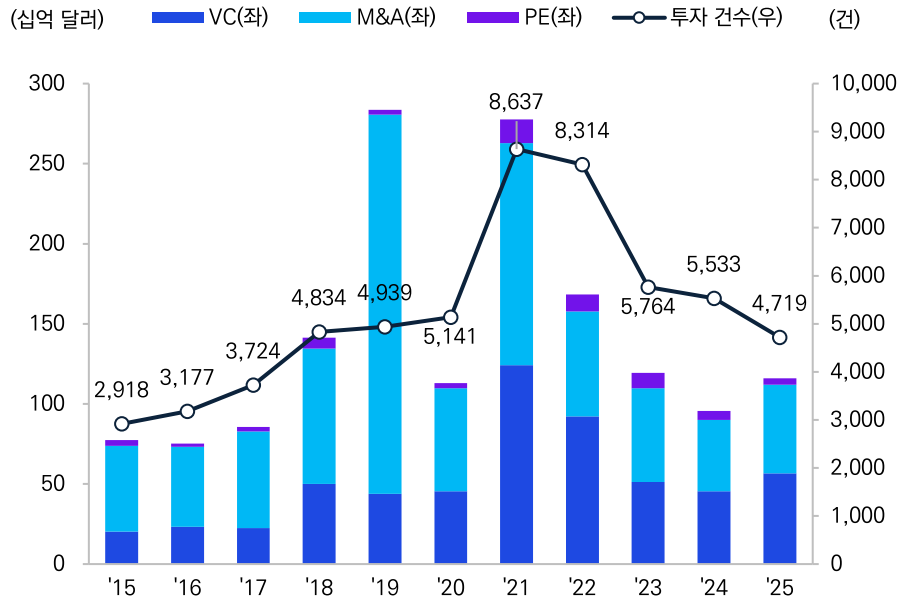
I.

Executive Summary 및 2026년 상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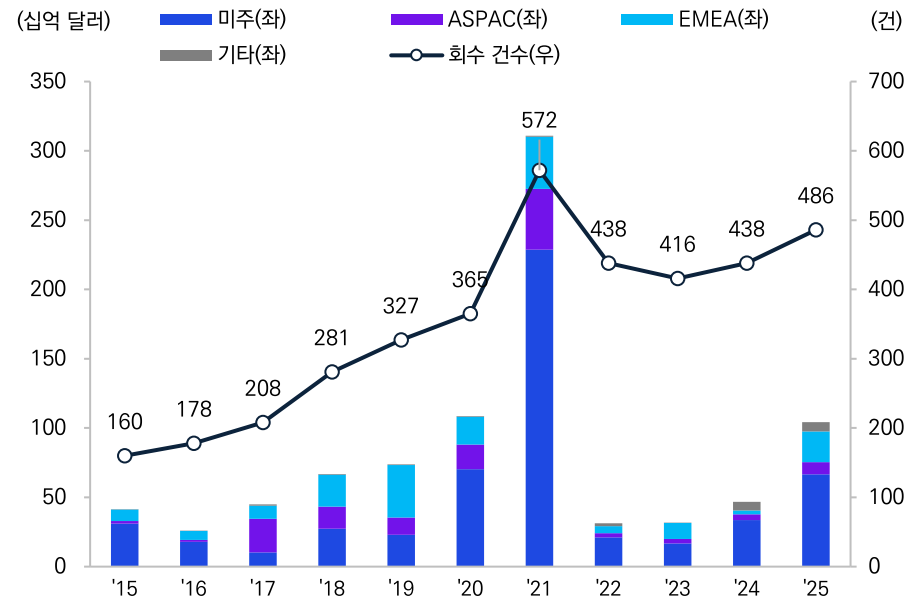
① 글로벌 핀테크 투자 3년 만에 반등... 회수시장의 회복세

- '25년 전 세계 핀테크 투자는 1,160억 달러로 전년(955억 달러) 대비 21.5% 증가하며 3년간의 투자 위축세에서 반등, 거래 건수는 4년 연속 감소세로 '25년 4,719건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최저치 기록
- '25년 핀테크 VC 투자(567억 달러), M&A(553억 달러)는 전년 대비 각각 24.7%, 24.1% 증가. 반면 PE(사모) 투자는 27.1% 감소한 40억 달러
- 글로벌 핀테크 회수 규모는 '25년 1,0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3.1% 증가, 건수는 11.0% 증가한 486건 기록하며 회복세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글로벌 핀테크 회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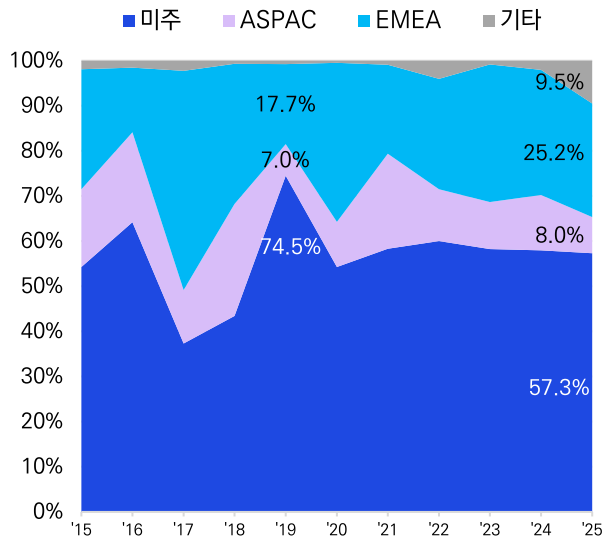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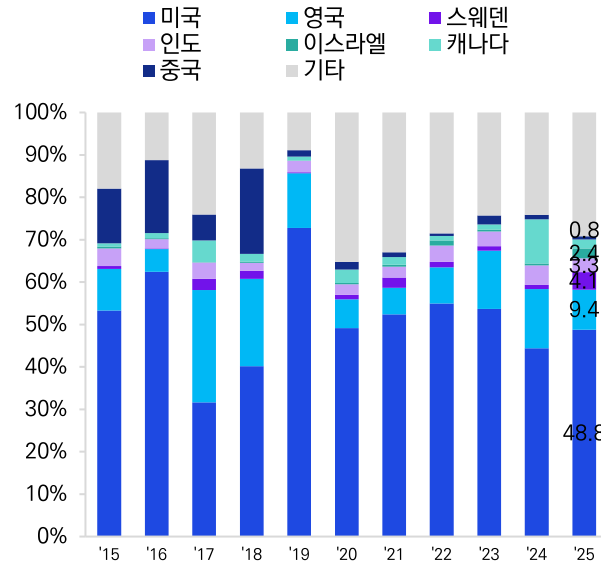
② 미국·영국의 양강 체제 공고화...한국 핀테크 투자는 전년대비 증가

- '25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 자금의 57.3%(655억 달러)가 미주 지역으로 유입되며 글로벌 핀테크 산업 주도. 반면 ASPAC(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8.0%(93억 달러)로 전년 12.3% 대비 하락
- 국가별 투자 비중 측면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25년 중국 투자 비중은 0.8%에 불과. 미국(48.8%)과 영국(9.4%)의 양강 체제가 뚜렷하며, 스웨덴(4.1%)과 인도(3.3%)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
- '25년 UAE(4.4억 달러)와 일본(6.5억 달러) 투자 규모는 감소한 반면 한국 핀테크 투자는 '25년 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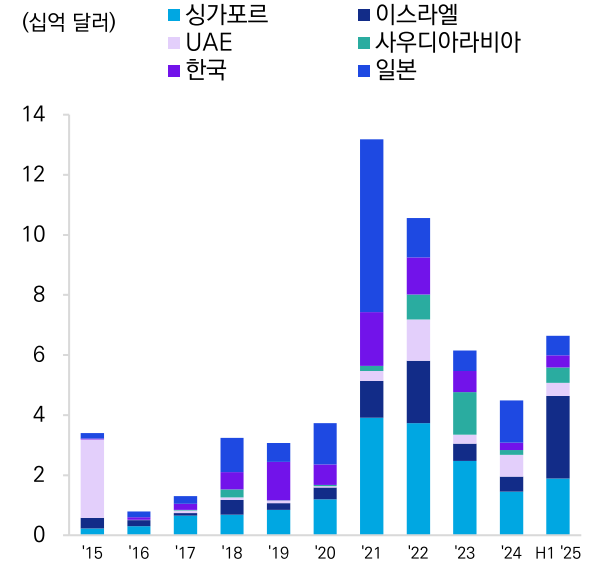
지역별 핀테크 투자 비중 추이 (금액 기준)



주요국 핀테크 투자 비중 추이 (금액 기준)



신흥국 등 핀테크 투자 금액 추이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Note 2: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 금액 대비 지역 및 개별 국가 투자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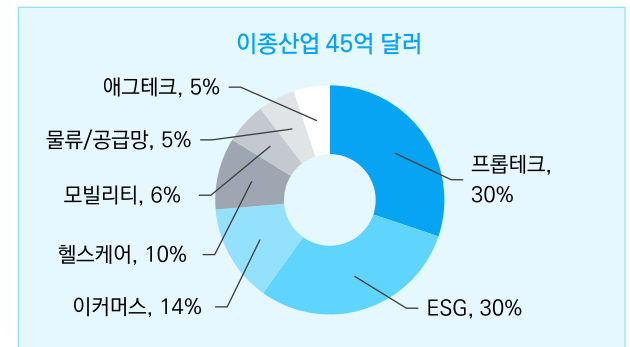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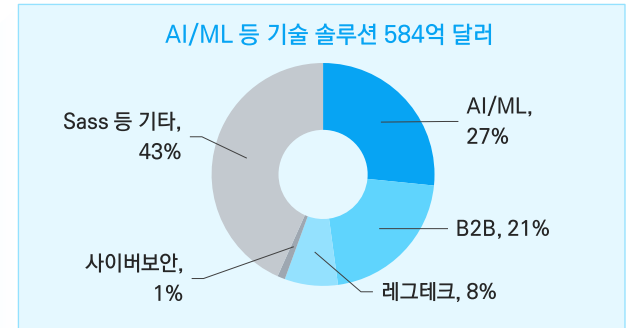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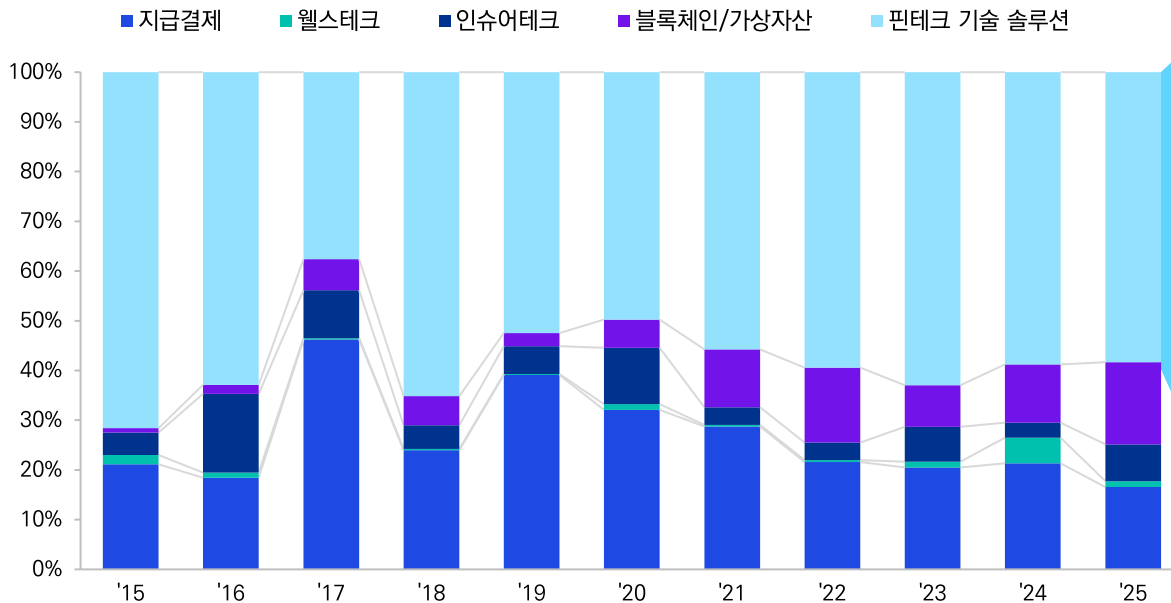
Note 3: EMEA(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지칭

Note 4: 커버리지 피투자 기업은 한국의 핀테크 기업 정의 및 기준과 상이함

③ AI 등 핀테크 기술 솔루션에 대한 투자 지속...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급증

- AI(인공지능)/ML(머신러닝), 사이버보안, 레그테크 등 핀테크 기술 솔루션과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핀테크 투자의 절반 이상을 지속 차지
- 미국 GENIUS 법안 통과 등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정비 기초,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등 디지털 자산의 확장성이 부각되며 '25년 블록체인/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한 19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핀테크 투자의 16.5% 차지
- 성숙 단계에 접어든 지급결제 부문 투자 비중은 '19년 이후 지속 감소세로 대형 소수 거래에 집중되며 '25년 16.6% 기록

글로벌 핀테크 투자 섹터별 투자 비중 추이 (금액 기준)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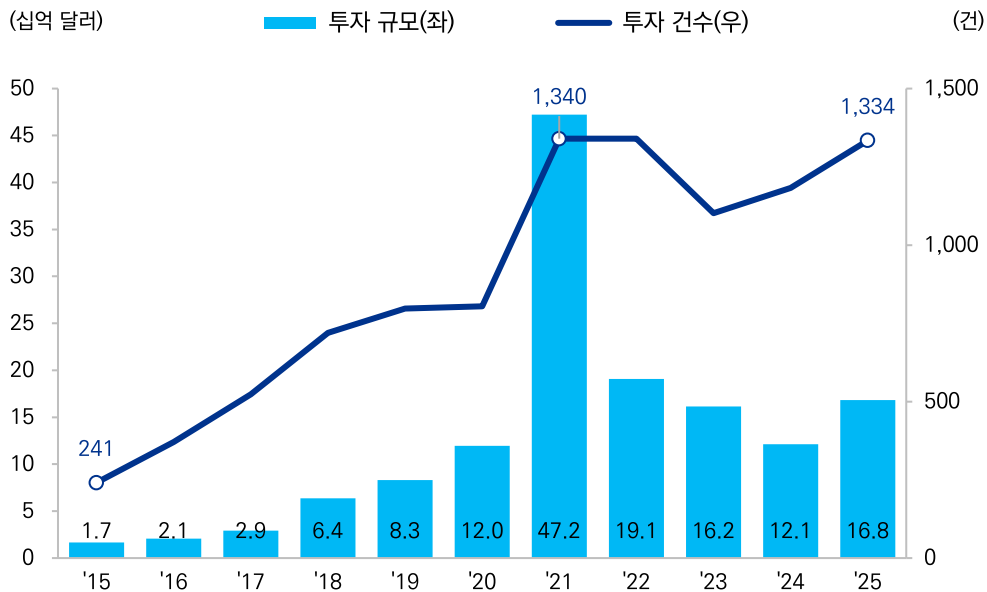
Note 1: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Note 2: Vertical에 따른 산업 분류로 기업별 중복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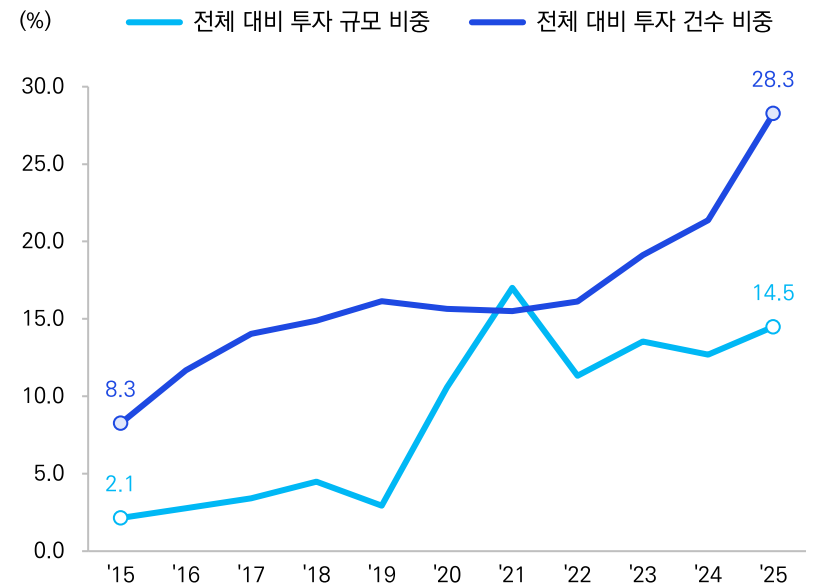
④ AI 핀테크 솔루션에 대한 투자 비중 역대 최고치

- '25년 핀테크 산업 내 AI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21억 달러에서 16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거래 건수도 1,183건에서 1,334건으로 증가
- 프로세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AI 관련 핀테크 기업과 솔루션에 대한 관심 증가
- 핀테크 기업들은 대형 기술 및 AI 기업들과 직접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AI 솔루션 개발 및 기업가치 향상 도모

글로벌 핀테크 산업 내 AI 관련 투자 규모 및 건수 추이



글로벌 핀테크 투자 대비 비중 추이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⑤ 후기단계 투자 다수 진행된 가운데 자본시장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

- '25년 하반기 최대 거래는 영국 기반 금융 서비스 플랫폼 레볼루트(Revolut)의 30억 달러 VC 투자 유치와 미국의 대형 PE인 어드벤처(Advent)의 이스라엘 보험 SaaS 솔루션 기업 사피엔스 인터내셔널(Sapiens International) 인수(25억 달러)로 미국 외 지역에서 진행
- 폴리마켓(Polymarket, 20억 달러) 및 칼시(Kalshi, 10억 달러) 등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 플랫폼이 '정보 시장'으로 재평가되며 VC 자금조달 성공
- 지트레저리(GTreasury), 칼라스톤(Calastone), 트레이딩테크놀로지스(Trading Technologies) 등은 자본시장의 혁신 주체로 인정받으며 자금조달 성공

'25년 하반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 Top 10

피투자(피인수)기업	국가	거래 유형	투자 규모(억 달러)	사업 영역	주요 비즈니스 모델
1 레볼루트(Revolut)	영국	후기단계 VC	30	뱅킹	• 계좌, 해외송금, 카드결제, 투자(주식·크립토 등) 등 슈퍼 금융앱
2 사피엔스 인터내셔널 (Sapiens International)	이스라엘	비상장화	25	인슈어테크	• 보험 및 금융사를 위한 코어 시스템·디지털 프론트엔드·애널리틱스 제공/SaaS 벤더
3 폴리마켓(Polymarket)	미국	후기단계 VC	20	예측 시장	• 폴리곤(Polygon)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예측시장 플랫폼
4 메리디안링크(MeridianLink)	미국	비상장화	20	대출	• 은행·신용조합·모기지 렌더 대상 디지털 렌딩 LOS(Loan Origination System) 통합 플랫폼
5 칼시(Kalshi)	미국	후기단계 VC	10	예측 시장	• CFTC(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미국 기반 이벤트·예측 시장(바이너리 옵션) 거래소
6 레볼루트(Revolut)	영국	후기단계 VC	10	뱅킹	• 계좌, 해외송금, 카드결제, 투자(주식·크립토 등) 등 슈퍼 금융앱
7 지트레저리(GTreasury)	미국	M&A	10	B2B/백오피스	• 기업 재무부서(코퍼레이트 트레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TMS(자금관리 시스템)로, 현금·유동성 관리, 위험관리(FX·금리·상품), 부채·투자관리, 결제 자동화
8 칼라스톤(Calastone)	영국	M&A	8.95	투자 인프라	• 자산운용사·펀드 판매사·커스터디를 연결하는 글로벌 펀드 트랜잭션 네트워크
9 트레이딩테크놀로지스 (Trading Technologies)	미국	세컨더리 바이아웃	8.35	백오피스	• 선물·옵션·채권·FX·크립토 등 다자산 거래를 위한 초저지연 클라우드 트레이딩 플랫폼
10 인스티튜셔널캐피탈네트워크 (Institutional Capital Network)	미국	PE 성장	8.2	웰스테크	• 자산운용사와 자문사·고객자산가를 연결하는 대체투자 마켓플레이스 및 운영 인프라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26년 핀테크 시장 전망 -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

- 투자자들의 핀테크 관련 AI 솔루션에 대한 선호 점증. AI 핀테크 기업의 경우 독창적 솔루션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이어질 전망
-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정비 기조는 관련 사업의 성장성에 긍정적 영향. 신흥국 내 새로운 핀테크 허브들이 등장
- 회수 활동 증가와 IPO 시장 재개 시, 핀테크 시장의 긍정적 변화 전망

1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 모멘텀, 그러나 리스크 관리 병행 필요

-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기업, 성숙한 스타트업, 그리고 신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핀테크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로 남을 것이며, 특히 미국에서 규제 명확화 기조가 이를 촉진
- 다만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 여러 관할권에서의 잠재적 경기 침체, 잠재적 AI 버블 가능성에 따른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자본시장 내 혁신적 변화 전망

- '26년 주식, 채권, 프로젝트 금융, 수출 금융, 그리고 사모신용(Private Credit)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괴적 혁신 가능성
- 향후 동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들의 역할 변화 및 투자자가 재편되며 산업의 변화 전망

3

아태 지역에서 특히 부각되는 자산관리 분야의 변혁

- 자산관리는 특히 아태 지역에서 주목받는 투자 섹터가 될 전망
- 아태 지역 자산운용사는 프론트-미들-백오피스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로의 전환, 데이터 솔루션 도입, AI 에이전트 통합, 펀드의 토큰화 도모하며 변화 중

4

RWA 허브가 되기 위해 공격적 움직임 보이는 UAE

- UAE는 중동에서 강력한 핀테크 허브로 계속 부상하고 있으며, 두바이와 아부다비 모두 투자 유치 증가세
- UAE는 글로벌 핀테크 허브와 RWA(실물자산 토큰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공격적 행보를 보이며 인재, 스타트업, 투자자를 유치할 전망

5

투자자 관심을 주도하는 AI

- AI는 핀테크를 넘어 글로벌하게 가장 뜨거운 투자 트렌드로, 상당 부분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이 빅테크·AI 기업과 협력을 고령
- 핀테크 중심의 AI 스타트업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 사업 모델을 변혁할 수 있는 독창적 솔루션을 통해 변혁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 재산권(IP)을 창출하는 데 점점 더 집중하며 주목 받을 것

6

미국 등지의 핀테크 IPO 활동 재개

- 홍콩 핀테크 기업의 IPO(기업공개) 가능성이 제고되나, 핀테크 산업의 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소지
- 미국 등지에서 AI와 디지털 자산 관련 핀테크 기업의 IPO 개선 가능성 등이 핀테크 투자와 거래에 긍정적 영향 가능

II.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과 전망



글로벌 핀테크 투자, 대형 거래에 집중되며 연 1,160억 달러로 증가

글로벌 핀테크 투자 3년 연속 감소 이후 증가

- '25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1,160억 달러로 7년 만의 최저치였던 '24년(955억 달러) 대비 21.5% 증가
- 거래 건수는 4,719건으로 4년 연속 감소세로 8년 만의 최저치 기록
- 반기별로는 상반기 2,550건·597억 달러를 기록한 뒤, 하반기 2,169건·563억 달러로 다소 둔화

'25년 핀테크 투자에서 미주 지역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25년 미주 지역은 2,409건의 거래에서 665억 달러를 유치하며 전 세계 핀테크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이 중 미국은 1,977건·566억 달러) EMEA 지역은 1,484건의 거래에서 292억 달러를, 아태 지역은 763건의 거래로 93억 달러 유치
- '25년 하반기 미주 지역은 1,160건의 거래로 274억 달러를 유치했으며(이 중 미국은 961건·239억 달러), EMEA 지역은 617건·138억 달러, 아태 지역은 362건·46억 달러 투자 유치
- '25년 하반기 3대 거래 중 2개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 영국 기반 금융 서비스 플랫폼 레볼루트는 하반기 최대 규모인 30억 달러 VC 자금을 조달했고, 이스라엘 기반 사피엔스 인터내셔널은 사모펀드 어드벤처에 의해 25억 달러에 피인수. 폴리마켓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로부터 20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유치하며 3위를 기록

VC와 M&A 투자 증가, PE 투자는 감소...미국 중심 CVC 활동도 개선

- '25년 VC와 M&A 투자는 전년 대비 증가
- VC 투자는 3,765건·56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전체 대비 48.8%)을 차지했으며, 이는 레볼루트의 30억 달러 자금조달이 주도
-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동은 총 297억 달러로, '24년 209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
- M&A는 554억 달러를 기록하며 '24년의 446억 달러 대비 증가. '25년 하반기 리플(Ripple)이 미국의 지트레저리를 1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 대표 사례
- PE 투자는 '24년 137건·55억 달러에서 '25년 114건·40억 달러로 다소 감소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

- '25년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는 191억 달러로 전년(112억 달러) 대비 거의 두 배 증가
- 미국 GENIUS 법안 통과와 '24년 EU의 MiCA(암호자산 시장 규제)의 완전 시행, '27년까지 영국에서의 규제 도입 예상 등 규제 방향이 확실해지면서 디지털 자산 부문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VC 자금조달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거나 IPO에 성공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며, 기업들은 직접 또는 컨소시엄을 통해 이 분야에 진출. 특히 머니마켓 펀드와 부동산 등 자산의 토큰화에 관심 증가



'26년 핀테크 섹터는 보다 균형 잡힌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선택적 성장, 명확한 수익성 경로, 그리고 유동성 개선을 특징으로 합니다.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강력한 엑시트 시장, 명확해진 규제 환경, 그리고 가속화되는 혁신이 지속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건설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arim Haji
Global Head of
Financial Services
KPMG International

시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은 가운데 핀테크 회수 활동도 활성화

AI 중심 핀테크, 168억 달러 투자 유치와 기록적인 거래량

- '25년 AI는 핀테크 분야를 넘어 주요 투자 트렌드로 안착
- AI 기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121억 달러('24년) → 168억 달러('25년)로 증가, 동 기간 거래 건수는 1,183건 → 1,334건으로 증가
- 기업들은 특히 운영 효율성과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AI 핀테크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형 기술 및 AI 기업들과 직접 협력하는 방식을 선호

지급결제, 대규모 선별적 투자 기조 지속

- 지급결제 부문은 전년 대비 투자가 다소 정체되면서 '25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542건·192억 달러 자금 유치
- 투자자들은 선도 지급결제 기업에 집중함에 따라 중소형 지급결제 기업들의 자금조달 난항

핀테크 회수 활동, 3년간의 침체 이후 활성화

- '25년 글로벌 핀테크 활동은 상당히 활발해졌으며, 회수 가치가 '24년 468억 달러에서 '25년 1,0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 기록
- 미국 IPO 시장도 '25년 마침내 반등, 특히 VC 지원 핀테크 기업들에 좋은 결과. 전 세계적으로 630억 달러의 IPO 가치를 기록하며 2021년의 2,252억 달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연간 총액을 기록

'26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트렌드

- 스테이블코인과 실물 자산 토큰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세 강화
- 대형 결제 플랫폼 간의 통합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추세
- 자금 운용 및 자산관리 분야에서 기업들의 대체자산 수용과 자산 토큰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 결제 산업의 새로운 핵심 격전지로 부상
- AI를 활용한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스타트업보다 빅테크 및 전문 AI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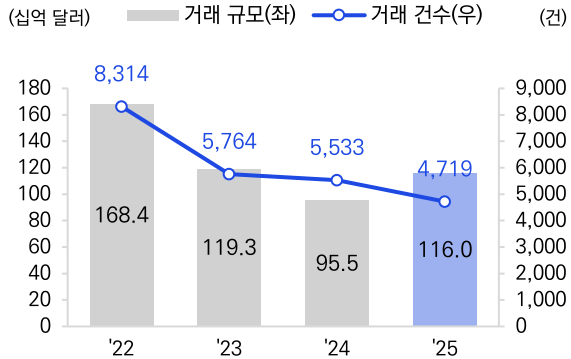
'26년에는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가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머니마켓 펀드, 재무관리, 채권 및 채무 관리에 디지털 자산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개발부터 보관, 체인 서비스, 발행 및 거래에 이르는 전 분야, 그리고 재무 및 자산관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실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 안정성과 거시건전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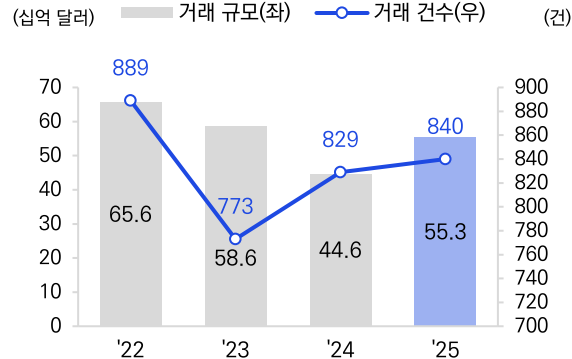
Anton Ruddenklau
Global Lead of Fintech and Innovation for Financial Services, KPMG International

'25년 핀테크 투자, 대부분의 섹터에서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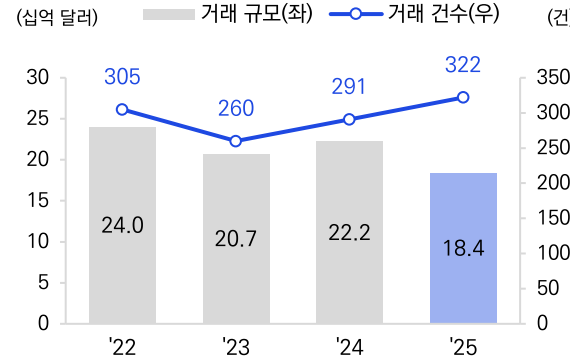
글로벌 핀테크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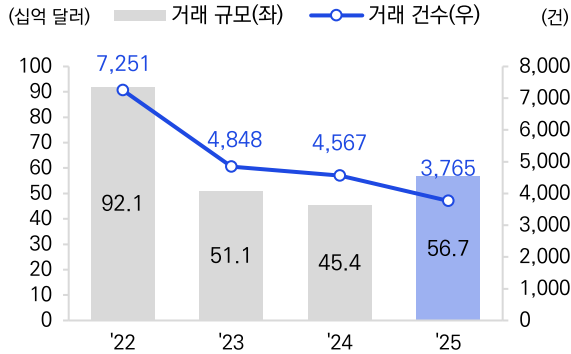
핀테크 관련 글로벌 M&A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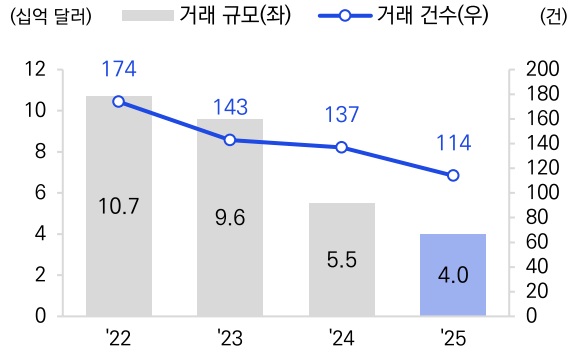
핀테크 관련 글로벌 Cross-border M&A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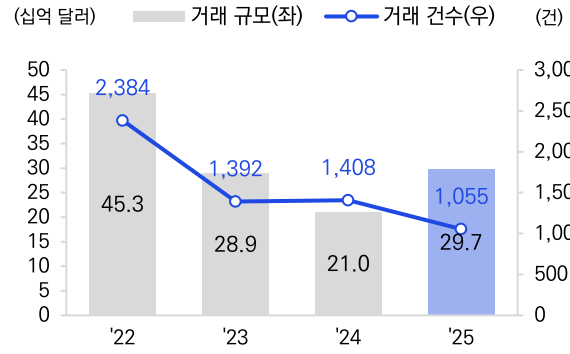
핀테크 관련 글로벌 벤처 활동



핀테크 관련 글로벌 PE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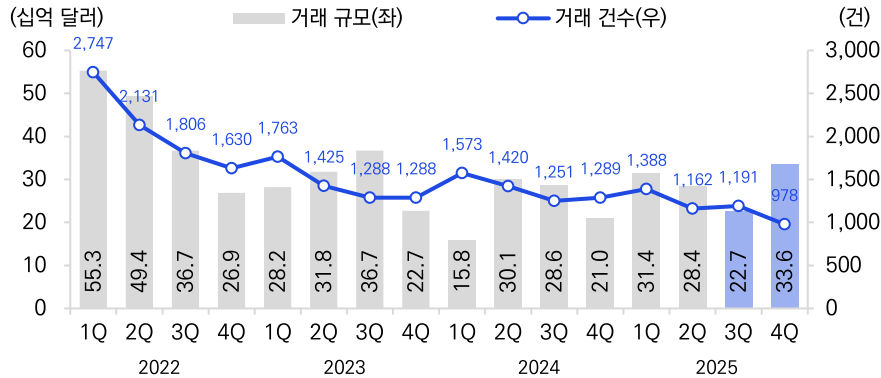
핀테크 관련 글로벌 CVC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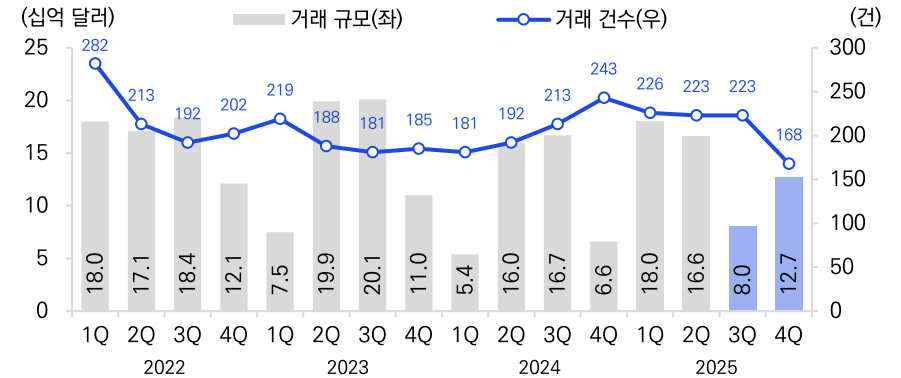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25년 하반기 연말 강세가 강한 모멘텀을 이끌며 투자 금액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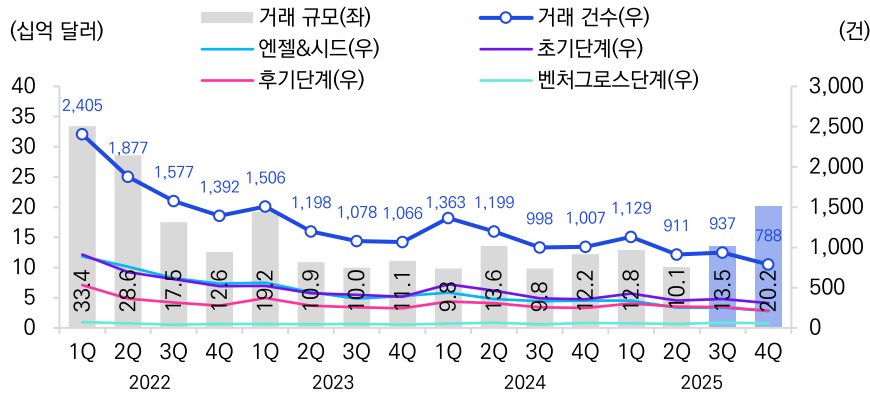
핀테크 관련 글로벌 총 투자 활동(VC, PE 및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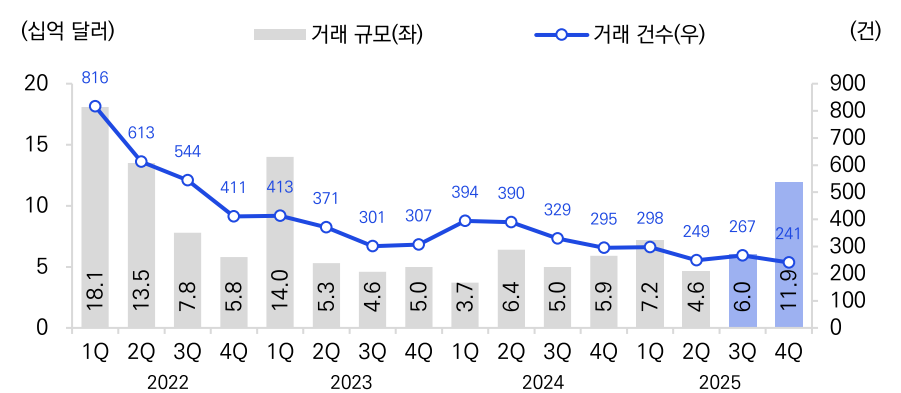
핀테크 관련 글로벌 M&A 활동



핀테크 관련 글로벌 VC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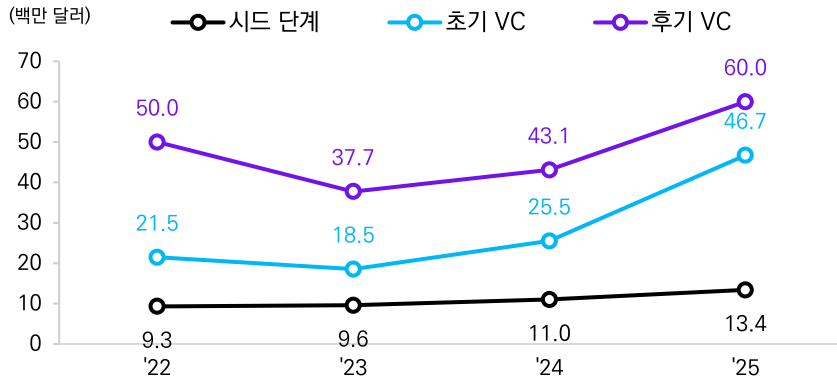
핀테크 관련 글로벌 CVC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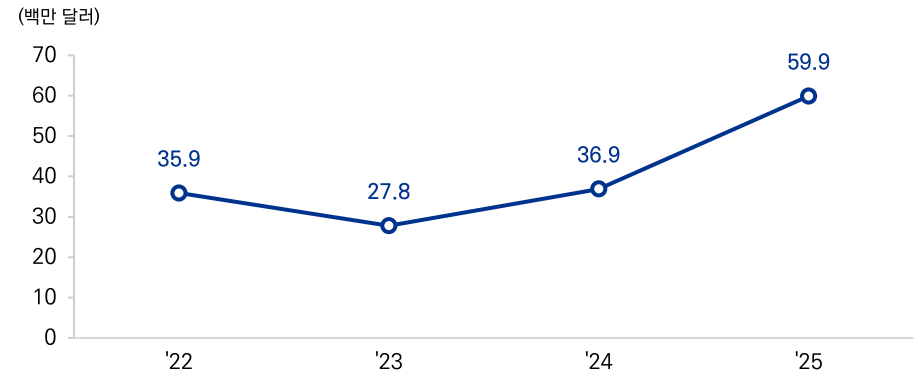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후기 VC 등 전반적 거래 규모 중간값 증가와 M&A '진행중' 거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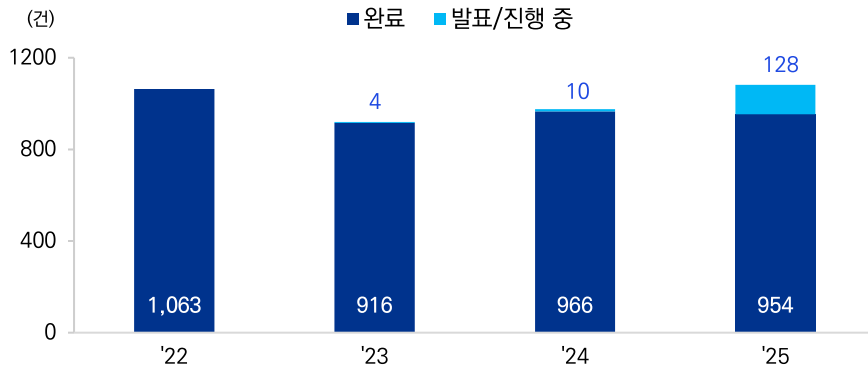
글로벌 핀테크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ation)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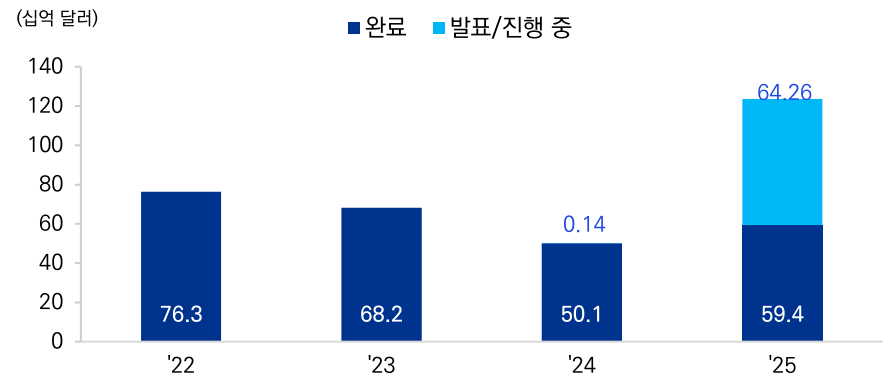
글로벌 핀테크 M&A 거래 규모 중간값 추이



핀테크 관련 글로벌 PE 및 M&A의 진행 상태별 건수



핀테크 관련 글로벌 PE 및 M&A의 진행 상태별 금액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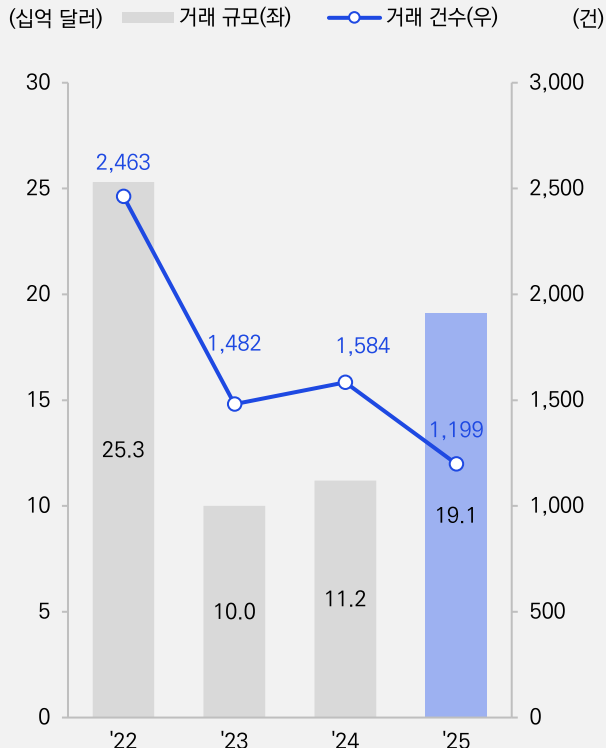
III.

섹터별 핀테크 투자 동향과 전망



규제 정비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관심 증가와 자산 토큰화 확산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총 투자 활동 (VC, PE 및 M&A) 2022~2025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디지털 자산 부문 투자액은 1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

- 2년의 부진기를 지나, '24년 1,584건·112억 달러였던 디지털 자산 분야 투자는 '25년 1,199건·1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
- '25년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8억 달러 조달, 국경 간 결제 및 암호화폐 회사 리플이 5억 달러 조달, 결제 블록체인 회사 템포(Tempo)가 5억 달러 조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 급증

- EU의 MiCA 전면 시행과 미국의 GENIUS법 통과('25년 7월)로 규제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관심 급증
- EMEA 지역 은행 컨소시엄(Qivalis)¹⁾의 유료 연동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 컨소시엄²⁾의 G7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일본 소니뱅크와 미국 바스티온의 게이머 대상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 등 은행들은 파트너십 또는 독자적으로 관련 사업 본격 확장

자산 토큰화의 확산

- '23년과 '24년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후, '25년 디지털 자산의 개발, 제공 및 확장으로 관심 이동. 특히 머니마켓 펀드의 토큰화가 주목
- 실물 자산 토큰화는 운영 효율성 개선, 자금 접근성 간소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자산 클래스 접근성 확대

IPO 활동 증가와 '26년 IPO 확대 전망

- '25년 피겨(Figure)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포함해 디지털 자산 분야 다수의 IPO가 이루어지며 강세를 보였으며 '26년에도 이어질 전망

Note 1: ING, BNP파리바, KBC, UniCredit 등 참여 / Note 2: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UBS, 시티그룹, MUFG, 바클레이즈, TD뱅크, 산탄데르, BNP파리바 참여. / Note 3: 유동성 파편화는 자산의 거래 가능한 물량(유동성)이 다수의 거래소, 플랫폼,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에 흩어져 상호 연결되지 않은 상태

'26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트렌드

-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실물 기반 자산토큰화 등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 경로에 관심
- 기존 참여자는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 해외 서비스로 확장, 전통 금융사는 시장 점유율 방어·경쟁우위 확보 위한 파트너십 등 역량 개발에 나설 전망
- 규제 초점은 유동성 파편화³⁾ 완화, 국가 간 조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운용성에 맞춰질 전망
- 검증된 수익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IPO와 M&A 활동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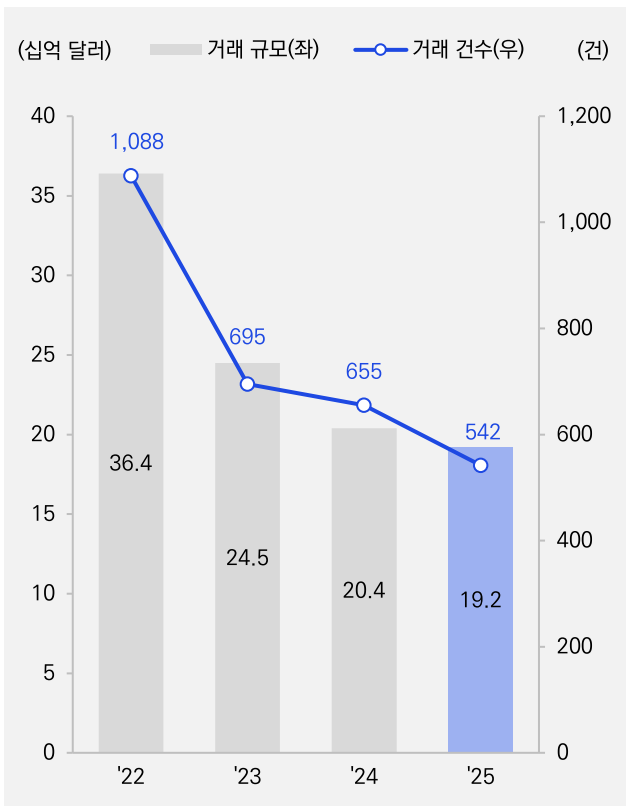
미국 GENIUS 법안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법안은 은행에게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 큰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은행은 디지털 자산 결제와 정산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은행과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자산 솔루션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Debarshi Bandyopadhyay
Director, Blockchain/Crypto
Financial Services, Advisory
KPMG in Singapore

선별적 투자 기조, 신흥·B2B·실시간결제 솔루션 관심, 전략적 중견 기업 인수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총 투자 활동(VC, PE 및 M&A)
2022~2025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전년과 유사 규모 투자 유치, 투자 건수는 9년만에 최저치

- 투자 금액은 '24년 204억 달러에서 '25년 192억 달러로 감소, 거래 건수는 동 기간 655건에서 542건으로 9년래 최저치
- 투자자들이 고위험 초기단계 기업보다 검증된 대형 성장 기업에 자본을 집중시키는 선택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

남미를 중심으로 신흥 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 지급결제 분야에서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신흥 시장은 핀테크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

B2B 결제 인프라에 대한 높은 관심

- B2C 지급결제 모델에서 벗어나 B2B 결제로 전환. 확장 가능하고 모듈화된 결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 지속 확대

실시간 결제, 인프라 구축 넘어 수익화와 기술혁신 단계 진입

- 외환 및 재무관리 분야에서 멀티레일 솔루션 도입과 결제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에 대한 관심 증가
- ISO 20022가 국경 간 즉시 결제의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면서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등장하고 각국에서 도입 우선순위가 높아짐
- SWIFT는 전 세계 30여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실시간 결제 및 토큰화 거래 지원 블록체인 원장 개발 발표 등 혁신

디지털 자산 활동과 자금조달 증가

-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은 디지털 자산 활동 증가를 견인하고, 디지털 자산과 전통적 금융 서비스 통합에 기여

지급결제 M&A, 중형 및 역량 기반 거래로 전환

- 지급결제 관련 공격적 확장에서 전략적 통합으로 전환되면서 중견 결제기업에 대한 M&A 급증, 인수는 대형 딜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며 운영 탄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향

'26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트렌드

- 결제 처리 방식이 현금흐름, 청구 거절률, 인력 효율성에 영향이 큰 헬스케어 분야에서 수직 결제(Vertical payments)에 관심 지속
- ISO 20022 메시징 표준 확산으로 실시간 결제의 상호운용성 증가
- 산업 컨소시엄과 파트너십이 디지털 자산과 실시간 결제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
- 국경 간 결제 최적화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통화 주목
- 결제 운영 방식을 재정할 수 있는 AI의 결제 밸류체인 혁신에 대한 잠재력 부각
- 에이전틱 커머스는 소비자 채널과 유통 구조를 변화시키고, 도매 시장의 결제 인프라에서도 영향력 확대 전망



B2B 결제는 '25년 하반기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원활한 국경 간 거래를 지원하며 컴플라이언스와 AI 기능을 갖춘 확장 가능한 모듈을 지닌 플랫폼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거래 복잡성 증가 속 효율성 개선과 ROI가 명확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를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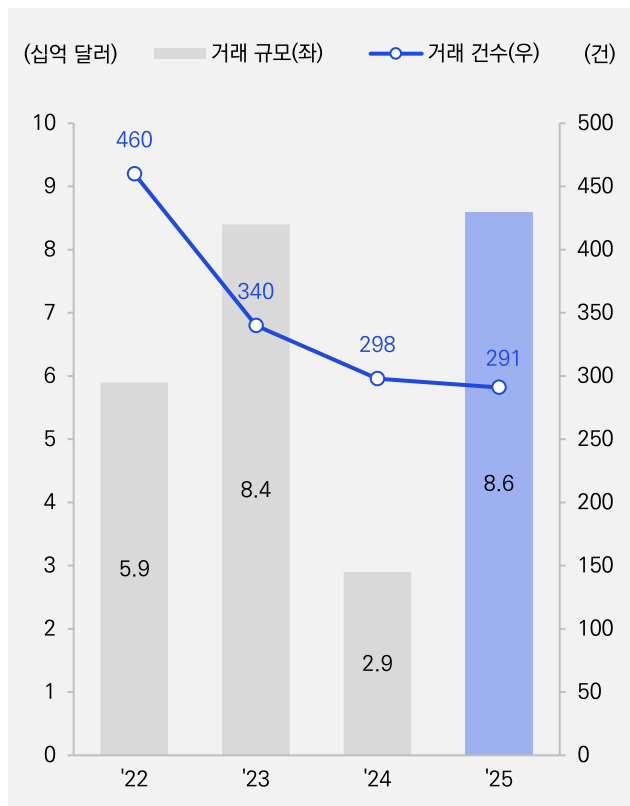


Courtney Trimble
Lead of Global Payments
KPMG International



대형 딜 2건에 기인 투자 규모 급증... 일부 인슈어테크 매각 가능성 대두

인슈어테크 관련 글로벌 총 투자 활동(VC, PE 및 M&A)
2022~2025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25년 2건이 대형 거래로 인슈어테크 투자(86억 달러) 급등, 투자 건수는 291건으로 소폭 감소

- 상반기 에르고(Ergo)의 미국 SMB(중소기업) 특화 디지털 보험사 넥스트인슈어런스(Next Insurance) 인수(26억 달러), 하반기 PE인 어드벤처의 사피엔스 인터내셔널 인수(25억 달러)로 인슈어테크 투자액 크게 증가
- '24년 글로벌 인슈어테크 투자액은 29억 달러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25년 86억 달러로 반등. 거래 건수는 소폭 감소하며 10년 만에 최저치인 291건으로 집계됨

높은 자본 요구 조건이 필요한 인슈어테크에 관심 저하

- 보험업 라이선스를 가진 인슈어테크 기업의 경우, 자본 요구 충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전환

AI가 보험업계 판도를 바꾸며 AI 솔루션 채택 촉진

- AI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지속, 전통적 기업들 사이에서 AI 솔루션 채택 증가
- 하반기 보험사들은 AI 부서 및 대형 AI 제공사와 협력함에 따라 외부 인슈어테크에 대한 의존도 감소

AI 도입의 첫 번째 물결은 효율성 증대에 초점

- AI가 주요 사업 프로세스 효율성 개선을 위해 도입 중이며, 향후 특히 예방 및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보험 사업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

지역별 AI 도입 양상과 특성 차이

- EU 등은 규제 요건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이 백오피스 효율성(보험금 청구 등) 개선에 초점,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AI 솔루션 채택

'26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트렌드

- 양자 컴퓨팅이 보험·은행, 특히 사이버보안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으로 관심 증대
-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독창적인 지적 재산권 개발에 점점 더 집중하는 추세
- 대기업들은 데이터의 규모와 민감성을 고려해 대형 AI 모델 제공업체와 협업을 선택
- 추가 자금조달에 실패한 인슈어테크 기업들의 매각 고려 사례 증가, 특히 높은 자본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생애 주기 내에서 수익 창출이 어려움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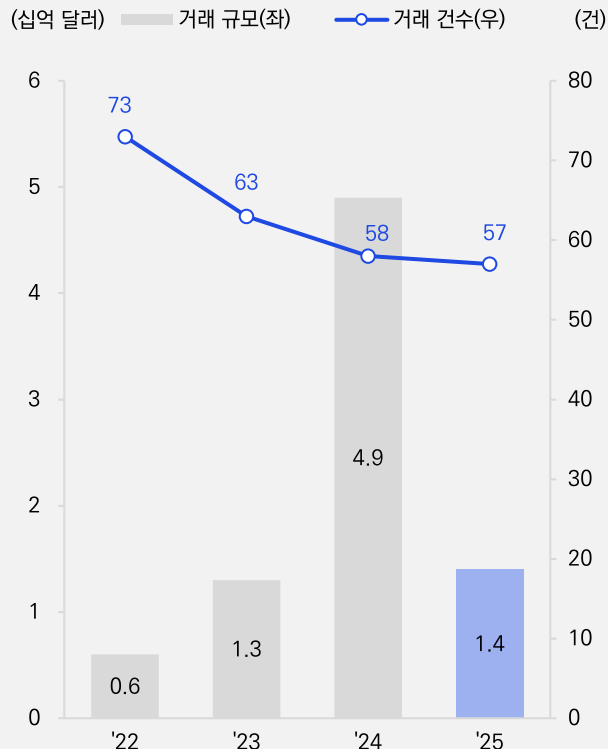
인슈어테크 기업이 미래 투자를 유치하려면 보험사에 차별화된 역량 개발과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히 AI 기반 솔루션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Ilanit Adesman Navon
Co-Lead of AI for Insurance
KPMG International

투자 급감... HNWI·에이전틱 시 디지털 자문 관심

웰스테크 관련 글로벌 총 투자 활동(VC, PE 및 M&A)
2022~2025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안정적 거래량에도 투자액은 14억 달러에 불과

- 웰스테크 분야 투자 둔화는 새로운 사용례 부재와 핀테크 투자자들이 AI 분야로 초점을 전환하는 등 복합적 요인 작용
- '25년 하반기 최대 거래는 캐나다 자산관리 핀테크 웰스심플 (Wealthsimple)의 5.38억 달러 규모 주식 펀딩 라운드

웰스테크 부문에서 AI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시간

- 웰스테크 AI 활용 사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미진. 투자자는 AI와 에이전틱 시가 자산관리 사업 모델을 어떻게 바꾸는지, 운영 효율성을 위해 어떻게 적용할지, AI 도입을 위한 조직 변화 등 고차원적 문제에 초점

고액자산가 시장 세그먼트에 우선순위 부여

- 각국의 자산관리 기업들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고액자산가(HNWI) 시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은행과 자산관리기업들이 고품질 자문을 효율적, 대규모로 제공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디지털 자문 분야 기업에 투자 집중

AI 에이전트 활용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에 관심 증가

- 웰스테크 투자자는 수년간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디지털 자산관리 도구에 집중했으며, 최근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의 강화 방안으로 에이전틱 시에 관심 증가

틈새 솔루션에 집중 지속하는 웰스테크 기업들

- '25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웰스테크 기업은 고도로 전문화된 솔루션 제공에 주력. 이들은 세분화된 상품 접근성, 저비용 투자자문 등 틈새 자산관리 솔루션을 소비자에게 직접 혹은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하는 데 집중

'26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트렌드

- 미국·EMEA 대비 아태 지역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온디맨드 및 자율형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
- 단순히 시 포장이 아닌 진정한 AI 기반 웰스테크 솔루션의 등장
- 은행은 자체 AI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 투자자는 고품질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를 활용해 어떻게 더 광범위한 인구집단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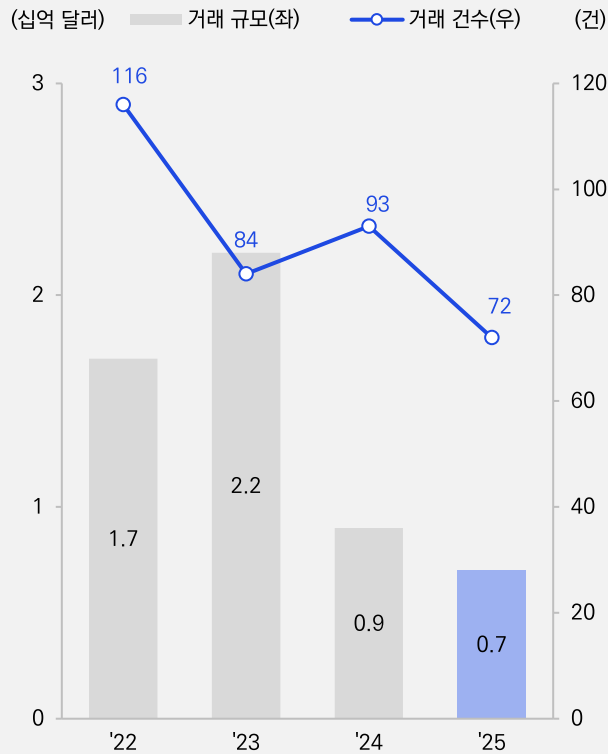
효율성 제고를 위해 머신러닝 기반 자동화가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에이전틱 시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AI 에이전트는 디지털 자문을 강화하고, 적시에 개인화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은행과 자산관리자는 사업 모델에 AI 통합을 꾀하고, 이는 실질적인 수익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Leon Ong
Partner, Financial Services
Advisory
KPMG in Singapore

산업 통합 기조로 투자 7년 만에 최저...에이전틱 사이버보안 등 관심

사이버보안 관련 글로벌 총 투자 활동(VC, PE 및 M&A)
2022~2025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25년 사이버보안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총액과 거래 건수는 7년 만에 최저치

- 72건의 거래를 통해 총 7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24년 93건의 거래로 8.9억 달러가 투자된 것과 대비
- '25년 대부분 거래는 VC 투자로 이뤄졌으며, 미국 디지털 신원 인증 회사 ID.me가 하반기 3.4억 달러로 최대 규모 조달

대형 플랫폼 플레이어에 의한 인수를 통해 통합 중

- 대형 사이버보안 기업·빅테크가 자체 플랫폼 역량 확장을 위해 특화 서비스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통합 전략이 핵심으로 부상

AI 성장에 따라 주목받는 데이터 보안

- AI와 에이전틱 AI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기업과 사이버보안 회사들은 자동화와 자율형 AI 솔루션 지원을 위해 신뢰성 있고 안전한 데이터의 필요성 인식
- 이에 데이터·데이터 보안에 크게 주목

투자자들의 관망과 VC/PE 투자 둔화

- 사이버보안 시장이 대형 플랫폼 플레이어 중심으로 통합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소규모 회사들이 인수되거나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결정을 보류

사이버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려 중인 주요 은행들

- '25년 금융기관의 에이전틱 AI에 대한 관심 급증. 다수 은행이 에이전틱 AI 솔루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호된 데이터레이크로 통합하기 시작
-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에이전트형 사이버보안 모델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및 성과 개선 방안 모색

'26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트렌드

- 금융기관 AI 수용도 증가로 데이터 보호와 AI플랫폼 보안에 초점을 둔 솔루션에 관심 증가
- 탐지 기능 강화 위한 에이전틱 AI 관심 증가
- 금융기관은 신원·데이터 보안상태 관리, 보안 운영 등의 자동화 방안을 모색
- 빅테크는 자사 플랫폼에 1단계 분류·복구 기능을 통합하여 기업 보안 팀이 2·3단계 등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
- 관리형 보안 서비스는 온보딩과 사용자 접근 권한 검토와 같은 분야에서 시간 기반 청구 등이 아닌 결과 중심으로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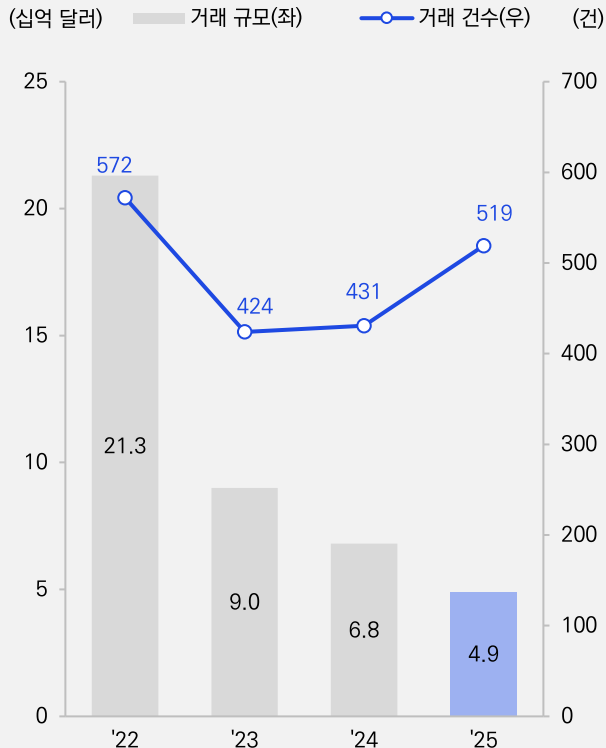
6개월 전만 해도 에이전틱 AI 기반 사이버보안은 흥미로운 미래 개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금융서비스 기업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이 기술이 주류가 되고, 지금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Charles Jacco
Global Lead of Cyber Financial Services, KPMG International

소형 거래와 초기 엑시트...기업들의 SI 컴플라이언스 역량 내재화 움직임

레그테크 관련 글로벌 총 투자 활동(VC, PE 및 M&A)
2022~2025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25년 레그테크 주목도 줄며 투자 총액 감소

- 레그테크 투자 총액은 '24년 68억 달러에서 '25년 49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거래 건수는 431건에서 519건으로 증가
- '25년 레그테크 부문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며 대부분의 투자가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
- '25년 하반기 가장 큰 거래는 미국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앱젠(AppZen)이 1억 8천만 달러를 VC로 조달한 것

레그테크 솔루션은 틈새시장에 머물며 분산된 상태

- 레그테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매우 소규모이며, 시장 내 특정 요소(예: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초점을 맞춘 틈새시장 형태
- 빠른 규제 변화로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 회사가 관련성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지속적인 자금조달에 난항

SI를 활용한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역량 구축

- SI의 혁신 속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을 고려할 때,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은 제3자 레그테크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내부 SI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

초기 엑시트 및 인수 통한 기업의 레그테크 역량 통합

- 초기 엑시트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후기단계 거래 기회 제한
- 유망한 레그테크 스타트업 다수가 은행 및 기타 기업에 의해 인수되고, 해당 기업은 자사 역량에 특정 기술 통합

'26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트렌드

- 규제 변화, 특히 ESG 관련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레그테크 투자 둔화
- 레그테크 기업은 끊임없이 변하는 핀테크 규제의 복잡성과 관할권 간 차이에 따른 어려움에 지속 직면
- 컴플라이언스와 보고 활동 효율화를 위한 SI와 에이전틱 SI 솔루션 활용 확대
- 규제당국, 중앙은행 및 글로벌 규제·협력 기구를 위해 SI 역량을 활용해 개발된 셉테크(SupTech, Supervision + Tech) 애플리케이션의 성장



기관들이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위해 SI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SI 기반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도구를 개발하면서, 외부 솔루션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레그테크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유망 레그테크가 플랫폼 기업에 인수되며 초기단계 매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레그테크들은 SI 기회 활용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더 수평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Anton Ruddenklau
Global Lead of Fintech and Innovation for Financial Services
KPMG International

IV.

지역별 핀테크 투자 동향과 전망

미주(Americas) – AI·디지털 자산 등 투자 주도. IPO 통한 회수 활동 회복 조짐

'25년 미주 지역 핀테크 투자 거래 건수는 4년 연속 감소했지만 투자 금액은 665억 달러로 전년(554억 달러) 대비 소폭 증가하며 긍정적인 전환

- 미국은 '25년 1,977건의 거래로 566억 달러를 유치해 전년(2,085건·424억 달러) 대비 금액은 증가·거래량 소폭 감소. 연방 정부 장기 섯다운의 영향으로 상반기(1,016건·327억 달러) 대비 하반기(961건·239억 달러) 투자와 거래량 감소
- 브라질은 '24년 8억 4,740만 달러에서 '25년 19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 캐나다도 '24년 몇 건의 대형 거래로 사상 최고치(99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5년 24억 달러로 투자 감소
- 미주 지역 투자자는 '25년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진 대규모 후기단계 기업에 자본을 선별적 집중. 이로 인해 다수의 성숙한 핀테크 기업들이 Pre-IPO 라운드 성공
- GENIUS 법안 통과로 '25년 디지털 자산 분야가 활성화. 전통 기업과 핀테크 외 기업도 디지털 자산에 주목하며 일부는 기존 부진한 사업 모델에서 디지털 자산 모델로 전환 움직임
- 미주 지역 엑시트 활동이 회복 조짐을 보이며 엑시트 가치는 '24년 217건·336억 달러에서 '25년 249건·665억 달러로 두 배 가량 증가. 대부분을 미국(217건·588억 달러)이 차지
- 미국은 디지털 자산 부문 IPO에 힘입어 핀테크 중심의 IPO 활동 크게 증가. 하반기 블록체인 대출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피겨(7.86억 달러),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4.25억 달러)가 IPO



규제 변화로 인해 '25년 핀테크 기업들의 IPO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하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이 아마도 가장 큰 혜택을 받았으며, 그 결과 IPO 측면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대형 핀테크 기업들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두 달간의 지연이 다소 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오히려 '26년에 좋은 IPO 시장이 열릴 가능성을 높인 셈입니다.



Jonathan Langlo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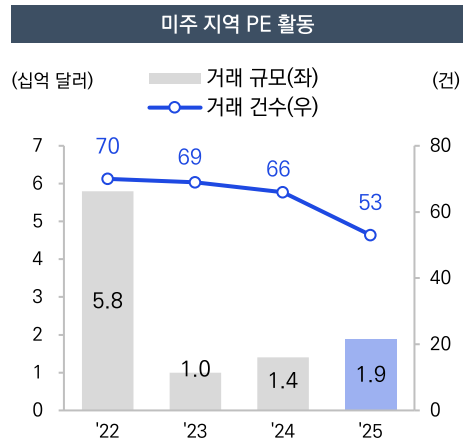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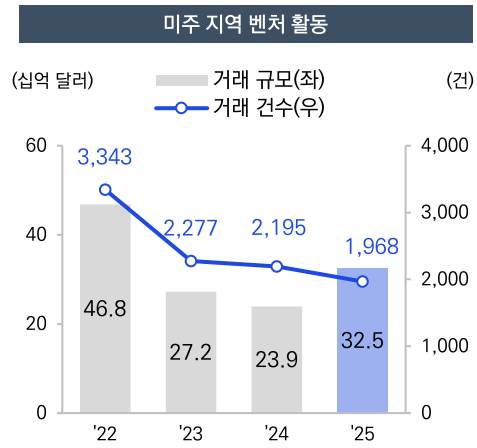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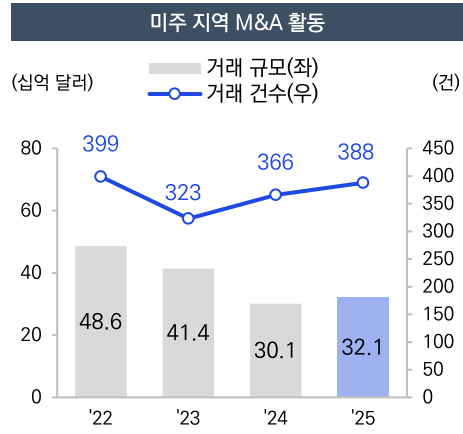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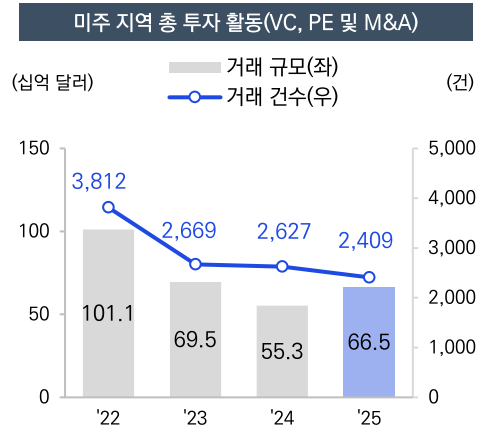
Principal, Advisory Financial Services Strategy
KPMG in the US



'26년 상반기 전망

- 스타트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의 네 가지 핵심 축(지갑 및 커스터디, 오케스트레이션 인프라, 발행사, 네트워크)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움직임
- 대기업과 대형 PE들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화폐 분야 투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파트너십 모델을 모색
- 대기업들은 전략적 소규모 인수(tuck-in)를 지속하는 반면, PE들은 점점 더 규모가 큰 투자 및 자진 상폐를 검토
- 금융 서비스와 웰니스 같은 비금융 영역 간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은행과 비금융 기업 간의 협업 및 파트너십이 일부 주도
- 기업들이 데이터 통제와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면서, 생산성 중심의 AI 기업들에 가장 많은 주목
- 중소기업 금융 분야는 중남미 등 핀테크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
- 성숙한 스타트업들이 엑시트를 모색함에 따라 핀테크 IPO도 증가세

미주(Americas) – 거래 수요와 신중함 동시에 작용



'25년 하반기 미주(Americas) 핀테크 투자 Top 10

기업	국가	사업 영역	거래 유형	투자규모 (억달러)
메리디안링크 (MeridianLink)	미국	대출	비상장화	20
폴리마켓 (Polymarket)	미국	예측 시장	후기단계 VC	20
칼시(Kalshi)	미국	예측 시장	후기단계 VC	10
지트레저리(GTreasury)	미국	B2B/백오피스	M&A	10
트레이딩테크놀로지스 (Trading Technologies)	미국	백오피스	세컨더리 바이아웃	8.35
인스티튜셔널 캐피털 네트워크(Institutional Capital Network)	미국	웰스테크	PE 성장	8.2
크라켄(Kraken)	미국	암호화폐	시리즈 C	8
플래타 카드(Plata Card)	멕시코	뱅킹	초기단계 VC	7.5
가이드라인(Guideline)	미국	B2B/백오피스	M&A	6
웰스심플(Wealthsimple)	캐나다	웰스테크	시리즈 E	5.36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EMEA) – 핀테크 투자 회복 속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25년 EMEA 지역 핀테크 투자는 292억 달러를 기록, 거래량은 8년 만에 최저치

- '24년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EMEA 지역의 핀테크 투자가 '25년 292억 달러로 회복되었으나,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1,803건에서 1,484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8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영국은 '25년 418건의 거래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109억 달러를 유치했으나, 이는 '24년(527건·133억 달러) 대비 감소한 수치. 노르딕 지역은 두 번째로 높은 투자액(101건·53억 달러)을 기록했으며, 이 중 스웨덴이 48억 달러를 차지. 이스라엘(27억 달러), 프랑스(10억 달러), 독일(9.7억 달러)이 뒤를 이음
- EMEA 내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심 급증. 영국은 '25년 12월 가상자산을 FSMA(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 편입하는 개정안 제출 및 '27년 시행 방침 발표. 역내 은행(ING, BNP파리바, KBC, UniCredit 등) 컨소시엄은 '26년 말까지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위해 키발리스(Qivalis) 설립
- '25년 중동은 전년(161건·7.414억 달러) 대비 135건·10억 달러로 투자가 늘며 핀테크 허브 위상 강화. 아프리카는 전년(126건·5.125억 달러) 대비 95건·3.704억 달러로 줄었으나 결제 분야 투자자 관심 지속
- '25년 하반기 유럽의회는 EU 전역의 결제 서비스 조화 및 사기 방지 강화를 골자로 한 결제 서비스 규정(PSR)과, 고객 보호와 결제서비스 경쟁력 강화 위한 제3차 결제 서비스 지침(PSD3)을 승인. 이는 EU 전역의 통합된 규제 체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성장 기회를 제공. 기존 기업들은 AI 역량을 갖춘 핀테크를 찾아 자사의 공백을 메우고 역량을 확장하려는 움직임



영국 핀테크 시장은 '25년 하반기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런던은 유럽 핀테크 투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 M&A 활동 증가 등 시장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annah Dobson
Head of Fintech
KPMG in the UK



EMEA 지역 전반에서 기존 금융기관들이 사기 방지, 결제, AI 등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핀테크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은행이 인프라 현대화에 나선 가운데, 첨단 기술과 운영 속도를 제공하는 핀테크들이 전략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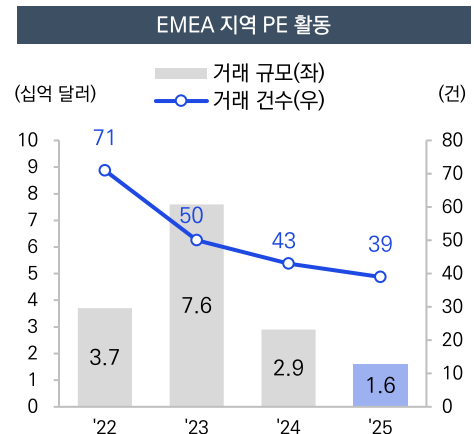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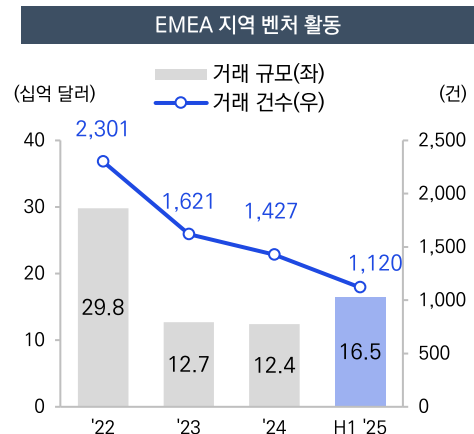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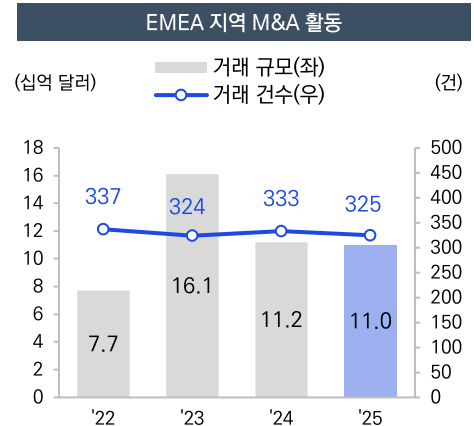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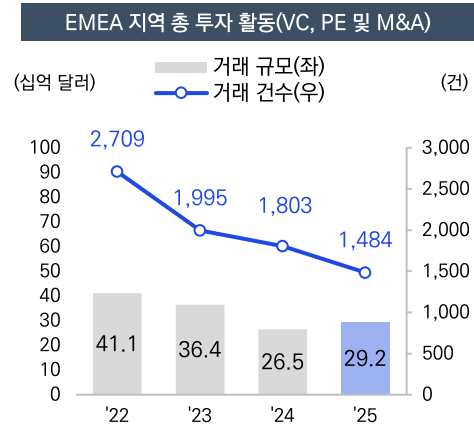


Dave Remue
Director, Head of Fintech
KPMG in Belgium

'26년 상반기 전망

-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AI 기반 솔루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방안 적극 모색. AI 시장 거품론 우려도 일부 존재
- 투자자들은 여전히 수익성이 입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집중 전망
-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정비로 디지털 자산 활용성이 구체화되며 신뢰도 제고로 추가 투자에 긍정적 영향
-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기회 지속 탐색
- 유럽 결제 이니셔티브(European Payments Initiative)에 따른 전자상거래 솔루션 확대, EU 내 디지털 유로 출시 가능성 등으로 미국 사업자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 강화 움직임
- MiCA 등 규제 준수 비용 증가로 소규모 디지털 자산 중심 핀테크 기업들 간의 일부 통합 진행
- IPO 활동 증가세로 기업들은 유동성 측면의 이점으로 미국 IPO를 우선 고려할 가능성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EMEA) – 거래 금액 회복과 거래 건수 부진



'25년 하반기 EMEA 핀테크 투자 Top 10

기업	국가	사업 영역	거래 유형	투자규모 (억달러)
레볼루트(Revolut)	영국	뱅킹	후기단계 VC	30
사피엔스 인터내셔널 (Sapiens International Corp.)	이스라엘	인슈어테크	비상장화	25
레볼루트(Revolut)	영국	뱅킹	시리즈 K	10
칼라스톤(Calastone)	영국	투자 인프라	M&A	8.95
래피드 파이낸셜 네트워크 (Rapyd Financial Network)	영국	지급결제/FX	시리즈 F	5
리차지닷컴(Recharge.com)	네덜란드	지급결제	애드온	4.67
PS Financial Transactions	영국	디지털 자산	후기단계 VC	3.5
질치(Zilch)	영국	지급결제	후기단계 VC	1.77
테일러(Taylor)	스위스	대출	후기단계 VC	1.76
위폭스(Wefox)	독일	인슈어테크	후기단계 VC	1.75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아시아·태평양(ASPAC) – 거래 규모와 건수 모두 10년래 최저치

아태 지역 핀테크 투자액과 거래 건수는 '24년 117억 달러(1,028건)에서 '25년 93억 달러(763건)로 감소하며 10년 만의 최저치 기록. 그런 가운데 한국 핀테크 투자 규모 증가

- VC 투자는 총 75억 달러(672건)으로 ASPAC 지역 핀테크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 M&A 활동은 17억 달러(82건), PE 활동은 단 1억 180만 달러(9건)로 집계
- 1억 달러 이상 거래는 호주 에어윌렉스의 VC 투자 유치(3.3억 달러), 일본 미즈호 파이낸셜의 AI 기반 비즈니스 신용 솔루션 업사이드 지분 인수(3.1억 달러), 인도네시아 어니스트의 1.4억 달러 VC 조달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
- 아태 지역 대부분에서 핀테크 투자 감소했으나, 한국은 증가. 중국은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긴장, 규제 강화로 9억 9,170만 달러에서 8억 7,610만 달러로 감소, 호주는 19억 달러에서 6억 900만 달러로 감소. 반면 한국은 '24년 2억 4,560만 달러에서 '25년 4억 240만 달러로 증가
- 중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스테이블코인 금지를 재확인했으며, 중국 기반 기술 대기업들의 홍콩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차단. 반면, 홍콩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25년 하반기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
- '25년 아태 지역 핀테크 회수는 62건에서 65건으로 증가, 4년 만에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17~'21년 대비 크게 낮은 수준. 홍콩 핀테크 IPO의 건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핀테크에 대한 신규 투자 촉진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26년 상반기 전망

- ASPAC 지역 전반에서 LLM(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AI가 여전히 핵심 투자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사용 사례에 관심 증가
- 데이터를 유동적·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프라이버시 컴퓨팅에 대한 관심 증가
- 중국 기반 핀테크들은 이중 시장 전략 활용. 해외 확장을 위해 신흥 시장에서는 검증된 모델을 복제, 성숙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솔루션에 집중
-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핀테크 투자자들이 보수적 시각 견지
- 호주의 금융기관들은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지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에 우선순위
- 중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의 공식화와 제도적 인정 확대
-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전역에서 디지털 자산 역량 강화, 인큐베이션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성장



중국에선 지난 5~6년간 여러 인수어택 기업이 성장했으며, 일부는 퇴출되고 일부는 홍콩에 상장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이들의 기술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플랫폼에 통합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업의 근본적인 방식을 혁신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rew Huang
Partner, Head of Fintech,
KPMG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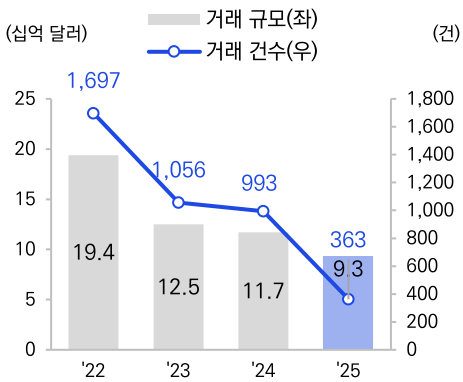
핀테크 전반에 걸쳐서는 다소 다른 시장과 고객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성을 유지하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을 모색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장기적 생존 가능성, 수익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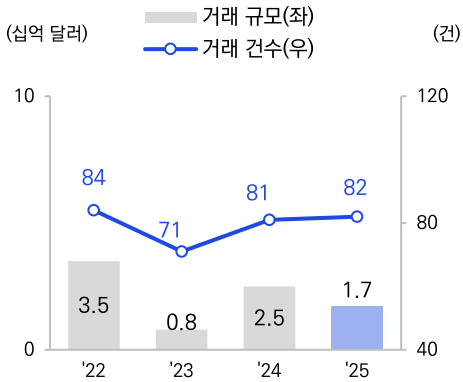
Daniel Teper
Partner, M&A and Head of Fintech,
KPMG Australia

아시아·태평양(ASPAC) – 소규모 업체들이 통합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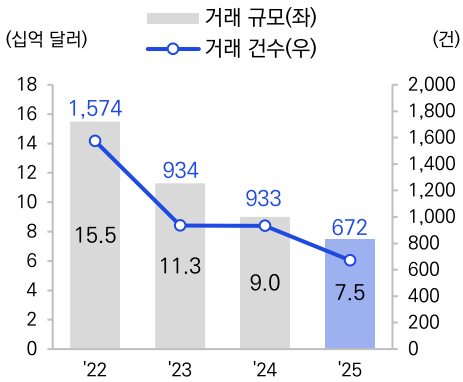
ASPAC 지역 총 투자 활동(VC, PE 및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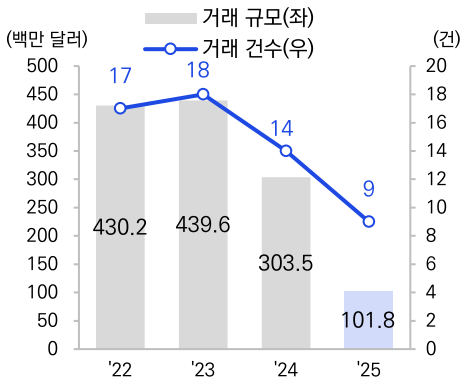
ASPAC 지역 M&A 활동



ASPAC 지역 벤처 활동



ASPAC 지역 PE 활동



'25년 하반기 ASPAC 핀테크 투자 Top 10

기업	국가	사업 영역	거래 유형	투자규모 (억 달러)
폰피(PhonePe)	인도	지급결제	후기단계 VC	6
알로이엑스(AlloyX)	홍콩	블록체인 결제	M&A	3.5
에어월렉스(Airwallex)	싱가포르	지급결제	시리즈 G	3.3
업사이더(Upsider)	일본	B2B/백오피스	M&A	3.14
프리미라랩(PremiaLab)	홍콩	리스크관리	PE 성장	2.2
어니스트(Honest)	인도네시아	지급결제	후기단계 VC	1.4
스냅민트(Snapmint)	인도	소비자금융	후기단계 VC	1.25
레이즈 핀테크 벤처스 (Raise Fintech Ventures)	인도	웰스테크	시리즈 B	1.2
메트로폴리탄 스톡 익스체인지 (Metropolitan Stock Exchange)	인도	자본시장	후기단계 VC	1.14
레도페이(RedotPay)	홍콩	블록체인 결제	초기단계 VC	1.07

Source: KPMG International "Pulse of Fintech H2 '25" (February 2026),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5년 12월 31일 PitchBook 데이터 기준

[Appendix]

Methodology

- 데이터 기준, 핀테크 정의 및 분류 기준



[Appendix] Methodology - 데이터 기준

- 본 보고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PitchBook Data (이하 PitchBook)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 PitchBook의 분류 방법에 따라 완료된(Completed) 거래만을 대상으로 핀테크 산업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CVC 포함), 사모 투자(Private Equity), 인수·합병(M&A) 거래를 포함
 -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펀딩,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펀딩은 제외
- PitchBook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에 추출된 데이터는 본 보고서에 활용한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벤처캐피탈(VC)

- 기관투자자, (개인) 엔젤 투자자·그룹, 시드 펀드, 벤처캐피탈, 기업 벤처 등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포함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부터 일부 조달 받은 자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액셀러레이터가 후속 라운드 투자 지속하는 경우 포함

- 엔젤/프리시드/시드(Angel/Pre-Seed/Seed)
 - 현재까지 스타트업이 PE 또는 VC 회사와 관계되지 않고, PE 또는 VC 회사의 경영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을 엔젤 라운드로 정의. 언론 보도 등에서 '엔젤 라운드'라고 명시하거나 투자한 개인에 대해서만 언급된 경우도 엔젤단계로 분류
 - 시드 투자임이 보도되거나 투자 규모가 5만 달러 미만으로 첫 번째 자금조달이라는 공모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드단계로 분류. 또한 투자자가 엔젤투자자만으로 구성되고 자금조달 단계가 명시적일 경우 시드단계로 표시
- 초기단계(Early-stage) VC
 - 일반적으로 시리즈A 또는 B단계이며, 정보 부족 시 기업 연혁, 자금조달 이력, 기업 상태, 참여 투자자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류
- 후기단계(Late-stage) VC
 - 일반적으로 시리즈C 또는 D단계 이후이며, 정보 부족 시 기업 연혁, 자금조달 이력, 기업 상태, 참여 투자자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류
- 기업형 VC(CVC)
 - 기존 CVC 계열사를 통해 투자하거나 대차대조표 또는 비 CVC 방법을 통해 지분 투자하는 경우 등을 포함

- Corporate/Growth단계
 - PitchBook의 또다른 벤처 자금조달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 스타트업 펀딩단계가 Corporate단계
 - 시리즈E 이상의 자금조달 또는 업력 7년 이상 및 VC 라운드 6회 이상 조달한 기업의 거래가 Growth 단계에 포함

사모 투자(Private Equity)

- 바이아웃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수지분 투자를 통한 Growth/Expansion 투자자의 거래를 모두 포함
- 거래 유형으로서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매니지먼트 바이아웃(Management Buyout), 매니지먼트 바이인(Management Buy-In), 추가 지분 인수, 세컨더리 바이아웃(Secondary Buyout), 민영화, 기업 분할, 성장/확장 등이 있음

인수·합병(M&A)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 지분을 50% 이상 취득한 거래로 경영권 인수, 레버리지 바이아웃, 기업 분할, 역합병(Reverse mergers), 스핀오프(Spin-offs), 자사 분할 및 자산 인수 등이 포함
- 채무 재조정이나 자사주공개매수(Self-tender), 구조조정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수지분 거래(지분율 50% 미만), 소기업 거래는 미포함

[Appendix] Methodology - 핀테크 정의 및 분류 기준

본 보고서에서의 '핀테크(Fintech)' 정의 및 분류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기 위해 금융 서비스 제공·운영 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을 지칭
- 핀테크에는 전통 금융 서비스 기업의 경쟁 우위와 소비자 및 기업의 금융 기능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도 포함
- Pitchbook은 핀테크를 "전통 금융회사가 대출, 결제, 자산 및 투자 관리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인터넷,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ATM 기계와 전자 거래 포털, POS(Point-of-sale) 등을 포함한 금융 프로세스를 자동화/해결하는 소프트웨어 제공기업"으로 정의

1. 지급/결제(Payments/Transactions)

- B2B, B2C 거래를 포함한 서비스상 가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지급결제에 포함

2. 디지털 자산 및 통화(Digital Assets and Currencies)

- 핵심 비즈니스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및(또는)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등과 관련한 기업
- 가상자산 채굴·저장·교환·결제 등의 서비스 제공 또는 관련 기술 개발 기업이 해당

3. 대출(Lending)

- 대안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해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비은행, 또는 온라인상 대출자와 투자자 등에 데이터 제공 및 분석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 포함

4. 프롭테크(PropTech)

- 프롭테크는 핀테크로 분류되는 동시에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구입, 관리 유지보수 및 투자를 용이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
- 이는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 IoT 홈 디바이스, 부동산 상장 및 임대 서비스, 모기지 및 대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 도구, 가상현실(VR) 모델링 소프트웨어, 증강현실(AR) 설계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 주택담보대출 기술 및 클라우드 펀딩 웹사이트 등이 포함됨

5. 인슈어테크(Insurtech)

-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의 속도, 효율성, 정확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업이 해당됨
- 견적 비교 웹사이트, 보험 텔레매틱스, 보험 도모틱스(Domotics, 홈 오토메이션), P2P 보험, 기업 플랫폼, 온라인 브로커, 사이버 보험, 언더라이팅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한 기업들이 포함됨

6. 웰스테크(Wealthtech)

-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플랫폼
- 또한 일반 투자자가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도 포함됨

7. 레그테크(Regtech)

- 각종 금융 규제와 보고 등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직원 및 고객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포함됨

8. 인공지능(AI) & 머신러닝(ML), ESG

- 해당 분야의 기업들은 기존 PitchBook 버티컬(Vertical)상 핀테크와 AI&ML에 모두 해당됨
- ESG의 경우 기존 Pitchbook에서 관련 버티컬(예: 클린테크)과 핀테크 버티컬을 활용하여 정의함

Business Contacts

Digital Transformation & Fintech 전문 서비스팀

이동근 전무
tongkeunlee@kr.kpmg.com

김세호 전무
seihokim@kr.kpmg.com

김문섭 상무
moonsupkim@kr.kpmg.com

황태영 상무
taeyounghwang@kr.kpmg.com

최종원 상무
jchoi16@kr.kpmg.com

최진영 상무
jinyoungchoi@kr.kpmg.com

home.kpmg/kr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